

포스코 50년 기술력·임직원 노력...포항제철 정상화 '담금질'

포스코가 태풍으로 인한 하천 범람으로 심각한 침수 피해를 입은 포항제철소의 정상화를 위한 '담금질'에 나섰다.

27일 포스코에 따르면 포항제철소는 총 18개 압연공장 중 올해 15개를 복구할 예정이다. 현재 1열연, 1냉연 등 7개 공장이 정상가동 중으로, 연내 기존 포항제철소에서 공급하던 제품을 모두 정상적으로 재공급할 방침이다.

앞서 포항제철소는 지난 9월6일 태풍 '힌남노'에 의해 제철소 가동 이후 처음으로 하천(냉천)이 범람해 여의도 면적에 달하는 제품 생산라인의 지하 Culvert(길이 40km, 지하 8~15m)가 완전 침수됐다. 또 지상 1~1.5m까지 물에 잠기는 등 불가항력적 천재지변이 발생했다.

포스코는 매뉴얼에 따라 태풍 상륙 1주일 전부터 자연재난대책본부를 가동, 하역 선박 피항, 시설물 결속, 침수 위험지역 모래주머니·방수벽 설치, 배수로 정비 등 사전대비 강화했다. 또 공장 침수 시 화재와 폭발 등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창사 이래 처음 '전 공장 가동 중단'이라는 포항제철소 54년 역사상 유례없는 특단의 방재 조치를 실시했다.

포스코의 이런 조치 덕분에 압연지역 완전 침수에도 불구하고, 제철소 내 단 한 명의 인명피해나 대형 폭발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뿐더러 이후 복구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는 평가다.

특히 포스코는 제철소의 심장이라 불리는 고로 3기를 동시에 휴풍시키는 결단을 내렸다. 50년의 작업 경험을 바탕으로 솟불이 굳는 냉입(冷入) 발생을 사전에 방지해 4일 만에 고로를 재가동시킬 수 있었다.

또 설비가동을 정지한 조치로 각 설비에 설치된 모터, 변압기, 차단기 케이블 등 수만 대 전력기기가 합선·누전으로 인해 대형 화재가 발생하는 것도 막을 수 있었다. 이후 광양과 포항의 모든 명장과 전문 엔지니어들이 설비복구에 앞장서며 세계 최고 수준의 조업·정비 기술력과 역량이 복구 현장에 결집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18개 압연공장 중 7개 재가동 세계 최고 기술력·위기관리 전 공장 가동중단 등 사전대비 천재지변에도 대형사고 막아 국내 중기 물량 선구매 등 고객사별 맞춤 수급 대응

각 공장의 설비 구동에 핵심 역할을 하는 모터는 선강 및 압연 전 공정에 걸쳐 약 4만4000대가 설치돼 있으며 31%가 침수 피해를 입었으나, 이 중 73%가 복구 완료됐다. 포스코는 당초 해당 침수 설비를 신규로 발주하는 것도 검토했으나 제작·설치에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능한 직접 복구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최대 170톤에 달하는 압연기용 메인 모터 복구작업은 EIC기술부 손병락 명장의 주도하에 50년간 축적된 노하우와 기술력이 총 동원되고 있다. 총 47대중 33대를 자체적으로 분해·세척·조립해 복구하는데 성공, 나머지 모터 복구작업도 공장 재가동 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포스코그룹 경영진은 포항제철소 단독 생산 제품 및 시장 수급상황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압연공장 복구계획을 수립, 수해 직후부터 매일 '태풍재해복구TF' 및 '피해복구 전사 종합대응 상황반'을 운영하는 등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려 계획대로 복구작업을 진행 중이다.

포스코그룹 최정우 회장은 글로벌 철강업계의 협력을 이끌어 내 포항제철소 핵심 공장인 2열연공장을 복구기간을 대폭 단축시켰다.

2열연공장은 포항제철소가 연간 생산하는 1350만톤의 제품 중 500만톤이 통과하는 공장으로, 제품들이 꼭 거쳐야 하는 중요한 공장이다.



포스코가 전사적인 역량을 결집해 포항제철소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진은 포스코 직원들이 2열연공장 복구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포스코 제공>

수해 피해가 컸던 2열연공장은 압연기 모터에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인 모터 드라이브 총 15대 중 11대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에서 설비 공급이 여의치 않았다.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될 상황이었다.

이에 최 회장은 세계철강협회 회장단으로 함께 활동 중이던 인도의 사잔 진달(Sajjan Jindal) JSW 회장에게 협조를 요청, JSW 열연공장용 모터 제작 중인 설비를 포스코에 내주기로 결정하면서 복구 기간을 크게 단축해 연내 가동을 가능케 했다.

무엇보다 포스코는 복구에 여념이 없는 와중에도 국내 고객사 피해 최소화화 및 시장안정을 위한 조치에도 적극적이다.

포스코는 포항제철소 제품을 구매하는 473개 고객사를 대상으로 수급 이상 유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수급 우려가 있는 81개 고객사에 대해 광양제철소 전환생산과 해외 사업장 활용, 타 철강사 협업 공급 등 1대 1 맞춤형 대응계획을 수립·시행해 수급 불안을 해소했다.

포스코는 원료·설비·자재 공급사에 대한 지원책도 추진 중이다. 9월 말부터 40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통해 37개사의 애로사항 및 유형별 지원방안을 도출해 조치하는 한편, 상시적으로 제철소 복구 일정 및 구매 계획을 공급사와 공유하고 있다.

또 포스코는 금리가 시중 대비 1~2%포인트 저렴한 '철강ESG상생펀드' 및 '상생협력 특별펀드'

170억원을 재원으로 수해 피해 기업들에게 유동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7개사에 총 275억원의 자금 대출이 완료됐다. 포스코는 거래금액 별 한도 조건을 폐지했으며 수해 피해기업이 펀드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포스코는 "항후에도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빠르게 보다 안전하게" 전 임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빈틈없이 복구를 진행해 초유의 위기를 극복하고 더 단단한 조직과 더 강건한 제철소로 거듭날 것"이라며 "이번 수해 상황과 복구과정을 면밀히 기록·분석하고 기후이상 현상에 대응한 최고 수준의 재난 대비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중소기업계 “화물연대, 하루빨리 복귀해달라”

“3중고” 상황 위기의 중기 수출길 틀어막아선 안돼” 읍소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계가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와 관련해 하루빨리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업무에 복구해줄 것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27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통해 "중소기업계는 화물연대가 엄중한 경제상황 속에서 대화와 협력을 저버리고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하루빨리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업무에 복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입장문에는 중기중앙회를 비롯해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벤처협회, 이노비즈협회, 한

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 주요 중소기업계가 동참했다.

이들은 "최근 고물가·고환율·고금리라는 3중고에 인력난과 원자재가격 인상까지 겹쳐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극심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일방적인 운송거부는 수출길마저 틀어막아 해외 거래의 주머니를 쥐는 등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집단운송거부를 통해 이미 1조6000억원 규모의 물류 차질을 일으킨 바 있다"며 "그런데 불과 5개월 만에 또다시 국민경제에 극심한 손해를 끼치는 집단운송거부에 나서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의 명분으로 내세

우는 안전운임제는 원래 목적인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불분명하다"며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인위적으로 물류비만 상승시키는 안전운임제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화물연대는 현행법상 정부의 정식 인가를 받은 노동조합이 아닌 화물 운송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들이 모인 단체로,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국가 물류를 볼모로 국민과 기업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집단운송거부를 지금까지도 멈춰야 한다"며 "정부도 산업현장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법집행을 해야 한다. 물류 피해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업무개시명령 등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국제광융합산업전 수출 상담 7475만달러

광산업진흥회

'제20회 국제광융합산업전'이후 MOU에서 3020만 달러의 성과를 거뒀다.

27일 한국광산업진흥회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번 전시회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에는 미주, 유럽, 아시아 등 20개국 100여명이 참가했다.

전시회 기간 국내 광융합 기업들과 89건의 상담을 통해 7475만 달러의 수출상담이 이뤄졌고, 무송지오씨(주), ㈜달빛, ㈜글로벌원, ㈜다온씨앤티 등 주요 기업들은 17건(3020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달성했다.

코로나19 사태로 3년 만에 광주에서 오프라인으로 개최된 전시회에는 해외시장을 개척하려는 국내 광융합기업과 세계 각국에서 참여한 해외 바이어와의 적극적인 상담이 이뤄졌다.

광산업진흥회가 운영하는 14개국 21개 해외 마케팅센터를 통해 지금까지 전시회에 참가한 바이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으로 이뤄진 성과로 풀이된다.

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채용 홍보관에서는 구인·구직 종합 일자리 매칭이 진행, 컬러테

라피, 퍼스널컬러 진단 등 체험 행사도 진행됐다.

그밖에 해외 시범설치 프로젝트 홍보를 위한 광융합제품 글로벌보급 지원사업 홍보관, 운영치료기 및 두피케어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광의료헬스산업협동조합관'과 라이다 융합산업 상용화 지원사업 성과 홍보관을 비롯해 스트레스 지수 측정, MBTI 진단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고용안전전세대응패키지 지원사업 홍보관도 운영됐다.

광융합산업 유관기관은 PLC·라이다 기술교류 세미나, 제12회 광의료헬스 심포지움, MEMS/반 산업 기술교류회 등 기존에 축소된 세미나를 분야별로 확대 운영해 참석자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지원했다.

특히 비대면 마케팅으로는 B2B(실시간 온라인 유튜브)가 실시간 시청자 수 1만2000여명을 기록,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병행해 향후 참여기업의 국내외 마케팅에 시너지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철동 진흥회 회장은 "이번 전시회는 B2B 비즈니스 기회 확대를 위한 고객 및 국내외기업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고, 어려운 여건속에서 기업의 국내외 마케팅 지원에 더욱 힘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왼쪽 8번째)이 올해 4번째 연 'SNS 광은스타' 공모전 시상식에서 우수 수상작에 뽑힌 직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 디지털 소통 마케팅... 'SNS 광은스타' 시상

광주은행이 고객과 접점을 넓히기 위해 마련한 'SNS 광은스타' 공모전이 올해 4번째를 맞았다.

광주은행은 최근 광주시 동구 대인동 은행 본점에서 송중욱 은행장이 4회 'SNS 광은스타' 공모전 수상자들을 시상했다고 27일 밝혔다.

공모전은 지난 7월부터 넉 달간 진행됐다. 일반형과 광주은행 캠페인 노래를 활용한 영상

(캠페인형) 두 부문으로 나뉘어 이뤄졌다.

광주은행의 금융상품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지역과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을 소개한 수상작은 광주은행 공식 소셜미디어(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중욱 은행장은 "기존의 틀에 박힌 정보전달이 아니라 고객의 감성에 공감하고 최신 경향을 반영

해 소통하는 생활민착형 금융마케팅을 펼칠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이 힘써주길 바란다"며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광주·전남 대표은행의 평판을 강화함과 동시에 지방은행의 한계를 뛰어넘는 디지털 소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캠코, 영암서 국유재산 설명회 열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최근 영암읍사무소 다목적홀에서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캠코 직원들이 직접 지역을 방문해 지역 이장단 및 주민을 대상으로 국유재산 매각정책 홍보 및 민원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코는 지난 2015년부터 도서산간지역 주민들의 국유재산 매입과 대부(임대)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 현장 중심의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를 매년 정기적으로 열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유재산 매입 및 대부 절차, 농지 수의매각 기준 설명, 국유재산 이용절차 관련 질의·응답 등과 국유재산 관련 현장 민원상담도 함께 진행됐다.

김용훈 캠코 광주전남본부장은 "앞으로도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 확대 등 실질적인 고객

서비스 제공 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의 국유재산 이용 편의를 증대하고 국유재산 활용도를 높여 공공기관으로서 정부정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

■ 로또복권 (제1043회)		2등 보너스숫자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3 5 12 22 26 31	19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1,468,646,956	17	
2 5개 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48,385,656	86	
3 5개 숫자일치	1,318,494	3,156	
4 4개 숫자일치	50,000	155,087	
5 3개 숫자일치	5,000	2,495,858	